

“미디어아트, 잃어버린 마음의 풍경 회복하는 일”

ACC, '이이남 작가와의 대화'
 전문가·시민 100여명 객석 메워
 “AI 시대, 스펀데이터·예술 융합”
 “개별 작품보다 ‘하나의 흐름’”



이이남 작가.

“바쁜 일상 속 기술에 의해 잊히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예술은 ‘잃어버린 마음의 풍경’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린 ‘작가와의 대화’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객석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의 관람객과 만났다. 이번 좌담은 지난 4월부터 ACC 복합전시 5관에서 진행 중인 ‘ACC 지역작가 초대전 - 이이남의 산수극장’의 연계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작가를 비롯해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유현준 건축가, 이대형 독립큐레이터, 김허경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센터장 등 전문가 5인이 참여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이남의 산수극장’은 전통 회화와 고전 텍스트, 디지털 영상, 입체 구조물이 결합된 미디어 아트 전시로, 시공간을 넘

나드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정서와 화풍을 현대적 영상 언어로 재해석해 ‘과거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경험’을 유도한다.

이 작가는 “산수화 속 풍경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 같다.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이 잃어버린 감정과 기억을 복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유현준 교수는 “변화가 빠를수록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이남의 작업은 전통 산수화의 2차원적 한계를 시간과 공간의 감각으로 확장시켰다”고 평했다. 이태호 교수도 “그의 작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관이 아닌 마음속 진경을 포착한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이이남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호 관장은 “이이남의 전시는 미술관을 감상 중심의 공간이 아닌 관객과 함께 완성되는 공감의 장으로 확장시켰다”며 “지역성과 세계성을 모두 담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작가의 예술세계는 AI가 구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기억과 감정, 즉 ‘스플데이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대형 큐레이터는 “이이남의 전시는

누구나 지니고 있지만 잊혀진 감각을 깨운다”며 “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이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김허경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 미디어 아트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지역 창작자와 국제적 협업 모델이 조화를 이룬 전시”라고 평가했다.

관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존 전

시와 차별점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이 작가는 “개별 작품이 아닌 전시 전체의 흐름에 집중했다”며 “스토리텔링과 감정적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전시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이남의 산수극장’ 전시는 오는 6일까지 ACC 복합전시 5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ACC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썸1980’ 20호 발행

창간 6주년... 잡지 구성 개편

전국 유일 지역영화비평지 ‘썸1980’이 창간 6주년을 맞아 20호로 시민을 찾는다.

2일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는 지난 달 30일 광주영화비평지 ‘썸1980’ 20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20호는 ‘썸1980’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특집호로 꾸려졌다. 창간 준비호부터 최근호까지 총 21권의 전체 목차와 필진, 매호별 핵심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편집위원들이 직접 써 내리간 자평을 통해 지난 6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들여다본다.

20호부터는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잡지 구성을 새롭게 기획했다. 이번 호의 주제는 ‘플랫폼’으로, 흩어진 글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고 각 코너 간 연관성을 강화했다. ‘크리틱’, ‘시네마틱 뷰’, ‘도큐멘타’ 등의 고정 코너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시선을 통해 영화를 재조명하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

‘클로즈업’ 코너에서는 교사이자 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인 김아솔 감독을 조명했다. 아이들과 영화를 함께 만들며 교육과 창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 감독의 진



솔한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표지는 윤연우 광주정년작가의 작업으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 ‘노매드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관객 참여 코너인 ‘픽앤리슨’에서는 ‘노매드랜드’에 대한 관객들의 감상평을 소개하며,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관람권(2매)을 증정한다. 참여는 ‘썸1980’ 공식 인스타그램(@scene_1980)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썸1980’은 매 호 평균 80페이지 분량으로 900부를 인쇄해 광주·전남을 포함 전국의 영화기관, 영화제, 영화단체,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정기 우편 발송하고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광주극장을 비롯한 지역 극장과 서점에서 ‘썸1980’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썸1980’ 전 권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박찬 기자

민중의 목소리로 소환한 항일운동...극단산, ‘비밀의 노래’

17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아리랑을 통해 잊혀진 역사 속 민중의 목소리가 무대 위로 소환된다.

2일 극단산은 연희음악극 ‘비밀의 노래’를 오는 17일 오후 7시 전라남도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단 하루만 펼쳐지는 특별 공연으로 마련돼 전통과 현대, 역사와 상상이 어우러진 다원예술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작품은 “아리랑이 독립군들의 비밀 암호였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전국각지의 아리랑을 엮어 음악과 퍼포먼스로 풀어낸다.

특히 단순한 음악극이나 전통극의 형식을 넘어서, 노래와 춤, 전통 타악, 민요가 융합된 다원 공연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의 민중이 아리랑을 통해 희로애락을 나누고, 때로는 독립운동의 비밀 신호로 활용한 이야기들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낼 전망이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유랑극단 단장 만석과 소리꾼 기록이 있다. 만석은 정선에서 기록을 만나고, 민요 ‘아리랑’의 가사에 독립운동 암호를 담아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기록은 결국 배우로 위장해 경성에서 ‘독립선언 작전 - 암호명 3.1’이라는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작품의 연출을 맡은 윤정환 연출가

는 “누구나 부르던 아리랑 속에 독립운동의 정보를 담으면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상상에서 작품을 시작했다”며 “총 17명의 배우가 출연해 풍성한 무대와 다채로운 아리랑 변주를 통해 당시 민중의 노래가 지닌 감정과 역사적 함의를 관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티켓은 티켓링크에서 단독 판매 중이며, 가격은 전석 1만원이다. 보성군민은 70% 할인된 3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 연희음악극 ‘비밀의 노래’ 공연 모습. 극단산 제공



‘중국 고등미술대학 수채작품 국제 순회전’ 광주서 개막

10일까지 전남대 미술관
 ‘시계교육’ 주제로 100여점

중국 31개 미술대학의 대표 수채화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중국 고등미술대학 수채작품 국제 순회전’이 오는 10일까지

전남대학교 미술관(용지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시계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는 ‘보이는 세계를 서로 융합한다’는 뜻으로, 작품과 관람객 간 상호작용과 예술적 소통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전시에는 중국 주요 미술대학의 엄선된 수채화 수작 100여점이 출품됐으며, 새로운 시대 중국 수채화의 창의성과 교육적 성과를 조명한다.

전시는 ‘흐름’, ‘레이어’, ‘확산’, ‘혁신’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관람객들은 수채화 매체의 유연성과 물의 생명력을 표현한 자연 이미지를 탐색하고 색채의 서사적 힘을 감상할

수 있다. 물빛과 자연이 어우러진 미학과 물의 언어를 재해석한 실험적 표현은 수채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순회전은 전통과 현대, 중국 본토와 국제 예술의 융합을 전경으로 보여준다. 수채화를 매개로 한 글로벌 예술 대화를 시도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시 개막식에는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의 주적화 부총영사와 외교관들, 중국 국가예술기금관리센터의 라오원강 처장, 루쉰미술학원 호병문 부원장 등 중국 측 주요 인사들과 더불어, 허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장, 강구섭 사범대학장, 문병채 한중경제인전선협회장, 김현주 미술학과장을 비롯한 학내 교수진과 지역 미술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박찬 기자